

# 박상우 장관,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

## -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, 미래발전과 교통안전에 공단 앞장 당부 -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4일(월) 오전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.
  
- 박 장관은 정용식 신임 이사장에게 “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음”을 강조하면서,
  -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교통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“한국교통안전공단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”을 당부했다.
  
  - 특히, “고령화 시대와 다양한 교통환경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,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덧붙였다.
  
  - 또한, “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으로, 상위권 도약이 필요” 함을 강조하면서, “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「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」에서 제시한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살펴봐 줄 것”도 요청했다.
  
  - 아울러 “‘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인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율주행차, 도심항공교통,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”을 강조했다.

2024. 10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